

一八、佛國寺無說殿에도 皇龍寺講堂址에서와 같은 遺構가 있으나 이곳의 方形 遺構는 東쪽으로 一間 欠우쳐 있다.

# 龍門山上元寺의 遺蹟 遺物

金 和 英

龍門山 上元寺는 현재 京畿道 楊平郡 龍門面 延壽一里에 위치하고 있다. 龍門에서 下車하여 延壽一里를 지나면 龍門山麓에 두溪水가 이루는 三角 臺地위에 菩提寺址가 있고 다시 菩提寺址에서 溪谷을 따라 十里쯤 올라 가면 上元寺가 있다. 이 菩提寺址에서 日政期에 大鏡大師 玄機塔이 日本 商人에 의하여 서울로 搬出되어 ① 현재 梨花女子大學校에 移建되어 ② 있으며 同塔碑는 朝鮮總督府에 의해서 당시 總督府博物館으로 移建(현재의 景福宮)되었다. 현재 寺址 全域은 田畝으로 변하여 아무런 遺構를 찾을 수 없고 다만 耕作地에는 瓦片이 散在하고 있을 뿐이다.

이 외에도 이곳 龍門山에는 龍門寺 潤筆菴址③등 古刹址가 있다. 그런데 上元寺에서는 日政期에 同寺의 銅鐘이 서울로 搬出되어 曹溪寺에 移安되었다고 傳하여 왔으며 大正五年度 古蹟調査報告에도

此寺ニアリシ高麗時代梵鐘ハ今京城東本願寺說教場ニ懸ワ。優秀ノ作ナレドモ銘文ナキハ惜ムヘシ

라고 있다. 이 銅鐘은 朝鮮 梵鐘 중 특이한 양식이라 하여 日政末期에 寶物로 指定되었고 解放후에도 계속 國寶로 指定되어 保存되었으나 數次에 걸친 현지 踏査와 鍾의 양식으로 미루어 曹溪寺의 銅鐘은 韓國鍾이 아님이 밝혀지고 上元寺 銅鐘은 日本으로 搬出되었을 것이라고 推定되었다 ④. 筆者도 上元寺 銅鐘에 대한 調査次現地를 답사하였는데 ⑤ 현존하



圖 1. 龍門山上元寺 位置圖

는 建物은 事變후에 신축한 正面 三間 側面 二間의 法堂과 單間의 山神閣 및 寮舍 一棟이 있을 뿐이었는데 法堂 內에는 近來 造成된 石膏製佛像 二軀를 奉安하였다. 이밖에 境內에는 우수한 石造物 數點이 전해지고 있었다. 이에 대한 보고는 「大正五年度古蹟調査報告」에 있으나 매우 간단히 소개되어 있으므로 上記한 기록을 검토하고 報告에 빠진것을 보충하여 上元寺의 遺蹟遺物을 좀 더 자세히 소개하여 널리 알리고자 한다.

## 二

上元寺에 대한 記錄은 高麗史에 비로소 나타난다. 즉 高麗史世家卷第 四顯宗一에

「元年春正月乙丑廢上元道場 閏二月甲子復燃燈會……」

라 있다. 그런데 上記한 上元道場이 龍門山 上元寺인지 이 記錄만 가지고는 확실하지 않으므로 먼저 上元道場이 곧 龍門山 上元寺란 가설을 세우고 上元寺의 遺物을 檢討해 보고자 한다. 위의 기록에 의하면 上元

寺는 高麗時代에 道場으로 存在하였으나, 顯宗 元年에 이르러 「上元道場」을 廢하였고 다시 閏二月에 燃燈會를 奉饗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후 다시 高麗史에는 보이지 않고 朝鮮王朝實錄에 약간의 記錄이 있으나 世宗實錄 卷第一百二十七, 三十二年 正月 庚子條에

「遣小尹鄭孝康干龍門山上元寺設救病水陸齋上欲令寫佛頂心施難哩使僧徒讀誦右副承旨金佺之啓臣有家藏板本即命印之又命副知敦寧姜希顏成均注簿成任金書彌陀觀音等經令都承旨李思哲跋其尾坡覽七日誦內皆用素膳」이라 있고 世祖實錄 卷第二十九 八年十一月乙未條에

「以上幸上元寺時有觀音見相之異百官進覲陳賀 下教赦謀反大逆謀反子孫謀殺歐罵祖父母妻妾謀殺夫奴婢謀殺主謀殺殺人但犯軍令盜強外罪」라 있어 抑佛政策을 取하던 朝鮮時代에 이르러서도 龍門山 上元寺는 法燈이 끊이지 않았고 특히 世祖 때에는 王이 친히 幸次까지 했던 寺刹임을 알 수 있다. 또한 東國輿地勝覽 卷之八 砥平縣 佛宇條에

「上元寺 在彌智山 世祖嘗幸于此」라 있어 上元寺는 彌智山에 있으며 世祖大王이 幸次하였음은 上記한 世祖實錄卷第二十九 八年 乙未條에서와 같다. 이곳에서 彌智山은 龍門山을 말함이나 東國輿地勝覽 砥平縣 山川條에

「彌智山 在縣西二十里 卽龍門山」이라 한 점으로 미루어 彌智山은 곧 龍門山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앞서 말한 바와 같이 上元寺에 대한 報告는 大正五年度 古蹟調査報告<sup>⑥</sup>에

#### 第六 上元寺(或作上院寺)

輿地勝覽砥平縣ノ條ニ「上元寺在彌智山世祖嘗幸于此」トアリ、彌智山ハ龍門山ノ 別名ナリ、地ハ今龍門面延壽里ニ屬シ延壽里部落ノ北端ヨリ二十餘町北方ノ樹木多キ山中ノ孤寺ニシテ先年暴徒蜂起ノ際火災ニ懼リシヨリ住僧ニ人ニ過キササル小寺ニ衰退セルモ佛殿潔淨ナルハ喜フヘシ遺物トシテ注意スヘキモノ石獅一軀ト石塔臺座一トアルノ……」

라고 있고 石獅와 石塔臺에 대한 약간의 설명이 첨가되었다. 그런데筆者가 現地를 踏査한 結果 上記한 二點의 石物 외에 拜禮石 石造羅漢像等

石造遺物이 殘存함으로 새로이 조사된 이 數點의 石造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三

上元寺에 이르면 뒤로 龍門山峯이 병풍처럼 둘러진 아늑한 분지들이 른 곳에 上·下二段의 石築址가 보이는데 上段石築上에는 다시 一段의 낮은 築臺를 쌓고 南向으로 造營하였던 寺址에는 事變後에 新築한 正面三間 側面二間의 法堂과 單間の 山神閣 및 寮舍一棟이 있을 뿐이다. 현재의 石築址로 보아 본래는 上·下段 長이 約 五十m式으로 推定되며, 下段 동쪽 끝에 高四m의 石築이 남아있어 構築手法를 짐작케 한다. 築臺위는 耕作地로 변하고 주변에는 高麗時代 靑磁와 瓦片이 散亂하다. 約 四百坪되는 法堂 臺地에는 長方形으로 治石한 石材들이 散在하고 있으며 現 法堂의 축대도 이 長大石으로 構築하고 있다. 이 일대도 耕作地로 변하여 瓦片이 散在할 뿐 별다른 遺構는 찾을 수 없다.

#### 一、石造羅漢像

이 羅漢像은 法堂뒤 山麓에서 最近에 移安하였는데 현재 寮舍 前庭 築臺 위에 있다. 이 羅漢像은 花崗石 一石으로 造成된 小像이며 頭頂部는 「시멘트」로 後補하였다. 相好는 鬚鬘하나 圓만한 편으로 兩眉·眼·耳·鼻·口唇이 整齊되었고 法衣는 通肩으로 臍前에 衣帶가 보이며 形式化된 衣紋이 흐르고 있다. 兩手는 跌坐한 무릎을 짚고 앉았는데 全面에는 白粉을 칠한 흔적이 뚜렷하다. 이坐像은 各部의 手法으로 보아 李朝時代 作으로 推定된다.

#### 實測值(單位는 cm)

全高 三六·五 頭高 一四 肩幅 一四 胸幅 九 膝幅 二一·五 高七 圓刻厚 一四·五

#### 一、拜禮石

拜禮石은 二片으로 半破되어 一石은 寮舍 앞에, 다른 一石은 현 山神閣 右側 路邊에 倒壞되어 있는 것을 조사하였다. 拜禮石은 花崗石으로 造成된 通式으로서 上面中央에 八葉의 蓮華紋이 彫飾되었고 側面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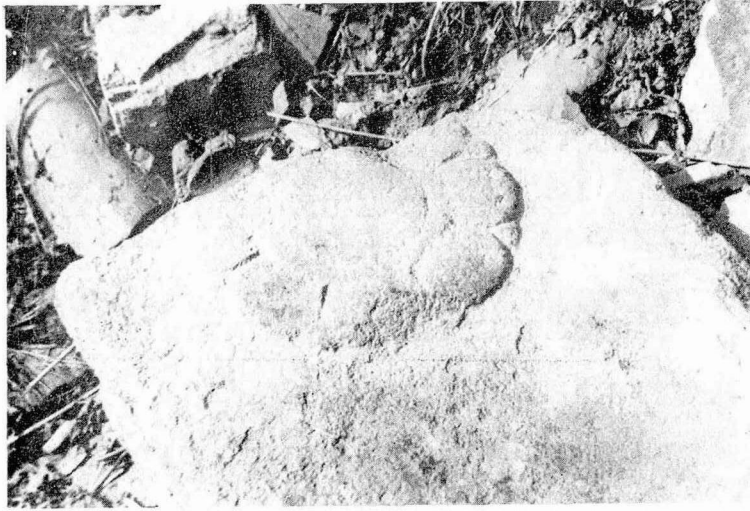


圖 2. 拜禮石

眼象이 彫飾되었다. 蓮華紋은 中央에 크고 둥근 子房이 있는데 子房內에는 蓮子가 처음부터 없었는지 아니면 磨滅되었는지 전혀 彫飾이 없고 一條의 太線이 子房周圍를 두루고 蓮瓣은 半圓形의 둥근 形態로 역시 蓮瓣의 주위를 一條의 太線으로 두루고 있다. 側面의 眼象은 上·下緣에 굵이 彫出되고 그 중간에 彫刻되었는데 前後에 각각 二區式、左右에 一區式、下部가 좁고 上部가 넓어진 細長한 通形을 이루고 있다. 이렇듯 上面 中央에 圓座形 蓮瓣을 彫飾하고 側面에 眼象을 배치한 類例는 羅·麗代의 拜禮石에서 흔히 볼 수 있는바 이 곳의 遺品은 蓮瓣과

眼象의 형태 및 그 조각 수법으로 보아 造成年代는 高麗時代 前期로 推定된다.

復原實測值

一邊長 八八、

四五·高二五

三、露盤石

寮舍 前庭의

石蓮座앞에 半破된 露盤石이

있다. 中央에는 徑一二cm의 擦柱

圓孔이 貫통되

었으며 各面에

는 兩隅柱가 表

現되었다. 上端

에 三段의 角形

받침과 幅六cm의

落水 홈이 있음은 매우 흥미로운 일이라 하겠다.

實測值

全高二六·五 一邊長四一隅柱幅十·五

四、八角竿石

八角竿石이 寮舍體 前庭의 蓮華臺石下에 고여져 있다. 一邊長 三三·五 高四五·五 cm 全徑七八 cm의 비교적 큰 竿石인데도 側面에는 隅柱도 없고 아무런 彫飾이 없다. 이 竿石은 그 크기로 보아 佛像臺座의 竿石으로 推定되나 이 竿石이 맞는 다른 部材는 아직 전혀 발견되지 않았었다. 그런데 上記한 大正五年度 古蹟調査報告에 一、石塔臺

「八角形ヲナシ此寺ノ盛時ヲ紀念スルモノナリ」

라고 있어 石塔臺라고 말한 八角石은 이 八角竿石을 말함인지 蓮華臺石을 말함인지 확인할 수 없으나 石塔의 臺石이라고 말한 점으로 보아 혹시 蓮華臺石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五、蓮華臺石

蓮華臺石은 上記한 八角竿石위에 倒置되어 있는데 眼象과 伏蓮으로 이루어졌다. 蓮華臺石은 八角으로 八角 각면마다 上下緣에 굵이 彫出되고 그 중간에 下部가 좁고 上部가 넓어진 細長한 通形의 眼象을 彫飾하였다. 上面에는 一段의 角形받침이 彫出되고 그 위에 複葉八瓣의 蓮華紋을 장식하였으며 上部에 물딩과 角形의 二段받침이 竿石을 받게 되었다. 현재 이 蓮華臺石은 眼象이 蓮華紋 外쪽에 놓여서 伏蓮이 仰蓮같이 보이나 眼象의 上 부분이 아래로 向한 점으로 보아 완전히 倒置되었음을 알 수 있고 伏蓮 上部에 圓孔이 없는 점으로 보아 石燈臺石이 아닌 佛像臺座의 下臺石임이 틀림 없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大正五年度古蹟調査報告에 石塔臺라고 한 것은 石佛臺座의 誤植일 것으로 思料되며 眼象의 手法이 拜禮石의 手法과 같은 점과 蓮華紋의 手法으로 보아 이 佛像臺座는 拜禮石과 같이 高麗時代 前半期의 作品으로 推定된다.

實測值

八角下臺 一邊長四〇 徑九四·五 眼象高六·五 幅二一·五 二七 側面 高一九 불딩 一邊長二三·五 高二角形받침 一邊長二一·五 高一·五

ナリ  
라고 있어 大正五年度부터 石獅子는 一軀만 전해지고 있으며 左足도 그 때부터 缺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제 현존하는 石獅子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 石獅子는 一石의 花崗石으로 圓각되었는데 下部는 평평하게 원형을 이루며 後尾는 앞을 향하여 세워져 구부리고 앉아 있다. 꼬리는 臀部로부터 後頭에 까지 이르고 있는데 꼬리의 끝이 넓고 굽게 퍼져 「숫사자」의 모양을 보여주고 있다. 前尾는 현재 모두 절단되었는데 위로 들어서 上部를 받들고 있던 모양임이 틀림없다. 頭相은 兩耳 옆



圖 3. 蓮華臺石

全高三五  
六、石獅子像  
石獅子는 倒  
置된 蓮華臺石  
上에 놓여져 있  
는데 「大正五年  
度古蹟調査報告  
에는 다음과 같  
이 소개되었다.  
石獅子  
石獅子ハモト一  
對アリシモノ  
ナルベシ今僅  
二一軀ヲ存ス  
ルノミ長二尺  
九寸六分アリ  
飛躍ノ形狀ヲ  
ナシ優秀ノ作  
ナリ左足ヲ缺  
失ス保存ニ注  
意スベキモノ

으로 옹골하게 달팽이 형을 이룬 모발이 덮고 있으며 부리부리한 두눈 두덩과 두눈, 귀, 코, 임동이 모두 사실적이며 웅건한 수법을 보여주고 있다. 胸前에는 모발로부터 흘러내린 二條의 영락이 느리워졌는데 中心에는 다시 세가닥의 영락이 彫飾되었다. 腹部에는 左右를 區分한 陰刻線이 表現되어 있다. 이러한 形態의 獅子는 앉아 있는 자세가 틀리기는 하지만 各部의 양식 및 수법이 忠北 堤川郡 寒水面 所在 寶物 第九四號 獅子頻迅寺址石塔의 獅子像과 比較할 수 있는데 上元寺의 獅子가 獅子頻迅寺의 石獅子보다 날세고 세련된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이 獅子는 下部가 평



圖 4. 石獅子像

평한 원형을 이루고 後尾를 세워 구부리고 앉아 있으며 前尾를 들고 있는 자세로 보아 上部의 다른 部材를 받치고 있었던 듯하므로 그 竿石으로 사용되지 않았으나 생각된다. 그리고 石獅子像은 各部의 양식이나 조각수법으로 보아 그 제작년대를 대개 高麗前半期로 推定할 수 있었다.

實測值



圖 5. 石佛坐像

現高五二現長八七 胸幅四五臂幅五〇 下部圓형받침 厚七·五徑三九、  
四二頭高二六頭長四二、  
七、礮石  
蓮華臺石 右側に礮石片이 하나 있다. 그 上面의 磨面部는 받은 斜線  
으로 되어있다.

實測值

現幅四〇長二〇高一七

八、塼 材

灰黑色의 方形塼이 현 法堂앞에 一列에 二七~三〇枚式 四列로 약 一  
二〇枚 깔려져 있다. 이 塼은 원래 上元寺에 사용되었던 것으로 法堂을  
新築할 때 모아서 깔아 놓은 것 같다.

塼의 크기는 一邊長二〇·五厚五cm

九、石佛坐像

이 石佛坐像은 延壽二里에서 동쪽 계류를 따라 上元寺로 올라가는

길가 약 1km 地點 左側臺地의 南向한 單間堂宇內에 奉安되었는데 이  
堂宇는 各段의 長約三~五m되는 三段의 築臺 위에 建立되었다. 現存  
하는 築臺로 보아 처음부터 이 石佛을 奉安하기 위하여 構築했던 것으  
로 推測되며 주변에는 瓦片이 散在함으로 당초부터 堂宇가 있었을 것이  
다. 현재 佛像을 奉安하고 있는 堂宇는 최근 「시멘트블럭」으로 맞배형  
으로 지은 小屋이다. 佛前에 양초와 공양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근래에도  
佛供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다.

坐像은 花崗石 一枚로 造成하였는데 臺座를 缺하였으므로 雜石과 「시  
멘트」로 混合 構築하여 基臺를 만들고 그 위에 一枚石으로 造成된 蓮華  
臺石을 놓아 臺座로 삼은 위에 坐像을 安置하였다. 蓮華臺石과 眼象은  
全면에 白粉으로 칠하였는데 이것은 근래의 소행으로 보인다. 蓮華臺石  
은 八角으로 下臺側面에는 細長한 眼象이 彫刻되었고 그 上面에 一邊  
三瓣式의 複葉伏瓣이 彫刻되어 모두 十六葉이 彫飾되었으며 正面中央에  
는 八角으로 二段의 角形 받침이 刻出되어서 그 위의 部材를 받도록 하  
였다. 佛像은 結跏趺坐하고 있는데 현재의 頭部는 後補物인 듯하다. 무  
에는 三道가 뚜렷하고 通肩한 法衣는 兩腕에 걸쳐 무릎을 덮으면서 앞  
으로 흘렀는데 앞자락이 波狀을 이루어 古式을 모방한 것이 注目된다.  
兩腕과 臍前의 衣紋이 太彫이어서 한편 조잡스러운 듯한 느낌을 주기도  
하나 各部에 均衡이 잡히도록 衣褶을 彫刻하였다. 手印은 왼손을 臍前  
에 들고 上掌하여 藥盒을 들고 있으며 右手는 胸前에 들어 藥盒위를 덮고  
있어 그 모습이 智拳印을 결합듯 오인하기 쉽다. 두 손을 가슴까지 들  
었으므로 양어깨를 들은 것 같이 보이어서 둔중한 感覺을 준다. 蓮華臺石  
으로 보아 당초에는 上·中·下臺의 臺座가 구비되었음을 짐작케 하는  
데 蓮瓣의 手法이나 坐像의 衣紋 및 造成樣式이 高麗中期로 推定되며  
이 일대가 넓직한 대지임으로 上元寺에 속했던 庵子址가 아닌가 推定  
된다.

#### 四

以上과 같이 上元寺와 그 일대의 遺物을 살펴 보고 관계 기록을 찾아

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一、上元寺에 現存하는 모든 遺物이 高麗前半期에 造成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二、그리고 기록에는 高麗史 世家 卷第四 顯宗一에 「上元道場」으로 처음 나타나는데 顯宗元年 正月乙丑에 廢上元道場이라 하였고 朝鮮王朝實錄의 世宗實錄과 世祖實錄에는 龍門山上元寺라고 기록되어 있다. 朝鮮王朝實錄의 龍門山上元寺는 틀림없으나 高麗史에는 上元道場이라고만 하여 어느 곳의 上元寺인지 의문되나 현존하는 上元寺의 遺物이 모두 高麗前半期로 推定되었으므로 「上元道場」과 上元寺의 遺物들은 그年代가 거의 一致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高麗史의 「上元道場」은 上元寺를 말함을 알 수 있다.

三、그런데 高麗史의 上元道場은 顯宗元년에 廢하였다고 하였으므로 顯宗以前부터 上元寺가 道場으로 存在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上元寺의 創建은 高麗 顯宗 以前으로 생각할 수 있다.

四、現存하는 遺物로 보아當初에는 石塔 石佛 銅鐘 雙獅子를 갖춘 石物 등으로 장엄을 이루었던 高麗時代의 盛利로서 朝鮮時代까지도 계속되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註)

- 一、朝鮮總督府「大正五年度 古蹟調査報告」 一五六~一五七
- 二、拙稿「梨大藏 石造浮屠에 關하여」金成植博士 華甲記念論叢參照
- 三、東國輿地勝覽 卷之八 砥平縣 佛宇條 參照
- 四、黃壽永「傳龍門山 上元寺銅鐘存疑」曉城 趙明基博士 華甲記念佛敎史學論叢 參照
- 五、一九六二年 六月과 十二月 두 차례에 걸쳐 踏查하였고 今年에도 一次 現地를 踏查하였다.
- 六、朝鮮總督府「大正五年度 古蹟調査報告」 一六〇~一六一
- 七、文化公報部 文化財大觀 寶物篇 上 三三六二

資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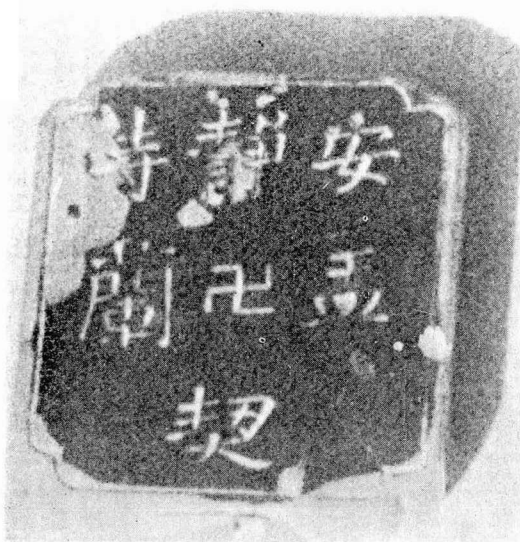
高麗時代의 孟蘭契牌

金相朝

今年여름 統營 閑山島 制勝堂 堂長 李淳弼先生께서 조그마한 木牌 하나를 주신 일이 있다.

實은 物件이 意外에도 佛敎制度研究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 여기에 概略을 紹介키로 한다.

寫眞에서 보는 바와같이 좁나무로 다듬어진 네모를 어엿부게 죽인 이 木牌의 表面中央에는 卍字를 새기고 右部分에 右橫書로 安靜寺, 卍字右左에는 孟蘭各一字를, 바로 아래에 契字를 楷書로 精誠들여 써서 陰刻하고



安靜寺 孟蘭契牌

裏面에는 從書로 梵語를, 卍(음나||唵)이라고 精巧하게 刻해져 있다.

安靜寺란 慶南 統營郡 光道面 安井里 碧鉢山下에 있으며 八方九庵子가 俱存했던 元曉 開瓶의 大刹로서 萬曆八年銘의 韓國鍾이 있는 널리 알려진